교과과정 개편, 시간강사 의견에도 귀 귀울여야

교과과정개편이 여전히 불편한 이유

양윤혁 yangyun0820@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교과과정 개편에서 개설되지 않은 강의를 두고 시간강사측과 후마측의 갈등이 지난 겨울방학 내내 지속됐다.

후마 소속 시간강사 45명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캠 후마로부터 '교과과정 개편'을 이유로 강의 비개설을 알리는 메일을 받았다. 이후 약 두 달 간 관련 논의는 '규정 적용'이라는 후마의 입장과 '일방적인 강의 미개설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시간강사 간의 갈등으로 교내는 물론 학교 밖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강좌는 교과과정개편(커리큘럼 적합성, 중복과목 정리, 영역폐지, 영역 내 교과목 조정), 연속 학기 위촉 제한, 강의 평가점수 미달에 따라 비개설 또는 폐지될 수 있다.

후마측, "규정에 의한 진행일 뿐" 시간강사측, "의견 개진 방법 없어"

후마 측은 이번에 개설되지 않은 강의는 타 단과대학과 함께 4년마다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교과과정 개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시간강사 측은 PRIME사업이나 각종 대학평가에 대비하는 지표가 중요시되는 학내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높이려는 대학본부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나아가 시간강사들을 하나의 협의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학내 규정 자체의 부당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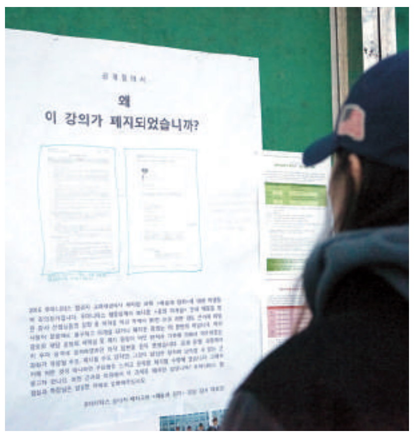
시간강사 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이번 교과과정 개편은 공식적인 절차(후마니타스칼리지운영개선위원회, 교육과정개편위원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인사소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대학의 대외 평가지표 개선 노력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 압력과는 무관하다"며 합리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시간강사 해촉으로 대형 강의 개설 또는 총 수강인원 감소로 학생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시간강사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캠 후마 이성미 계장은 "대형 강의에 관한 부분은 이전에 후마 대학생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최대 인원을 제한한 바 있으며, 수강인원에서는 전임교원 강의에 적은 인원을 배정했던 관행을 없애는 방법 등을 통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 해촉 과정에서 후마 강좌 '예술과 정치'가 개설되지 않은 채효정 강사는 "시간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라며 "오랜 기간 다듬어 온 강의의 질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채 강사는 "현재의 교과과정 개편 논의 기구에는 시간강사의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현실에서 학교가 시간강사를 하나의 통계 대상으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져 슬픔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학장 역시 "연속 학기 위촉제한이나 강의 평가 점수가 시간강사들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교과과정 개편 자체는 일정한 규정에 의해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후마 이성미 계장은 서면을 통해 "학기당 계약이라는 규정 상 연속 위촉에 대한 어떠한 보장과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한 바 있다.

시간강사 측에서도 후마가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교과과정 개편이 힘들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 채효정 강사는 "최소한 교과과정 개편 과정에서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의 입장을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중앙대자보판에 게재된 채효정 강사의 입장문

▲시간강사 해촉 문제로 인한 갈등의 이면엔 오랫동안 외면해온 '열악한 처우'가 도사리고 있다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엔 한 목소리

시간강사 해촉, 3 주체의 시작은

양윤혁 yangyun0820@khu.ac.kr

교과과정 개편은 필연적으로 미개설된 강좌를 담당하던 시간강사 해촉을 수반한다. 이번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교과과정 개편에서는 45명의 시간강사가 강좌 미개설로 '해촉'을 통보받기도 했다. 매 교과과정 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시간강사 해촉 문제가 이번에 크게 부각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겉으로는 후마교육자협의회(교협)가 출범되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시간강사 해촉'이 외부저널에 기고되거나 교내 대자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간 곪을 대로 곪은 시간강사의 처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45명의 시간강사 해촉을 불러온 이번 교과과정 개편에 대해 시간강사측과 후마 측은 교과목 정리의 타당성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수 차례 만남을 가진 이후에는 많은 부분에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양상이다. 지난 10일에는 교과과정 개편의 당사자인 대학본부 측(부총장, 교무처장), 후마 측(유정완 학장), 교협 대표 3인(전임교원 대표 김진해, 객원교수 대표 김민철, 시간강사 대표 이병주)이 참석한 회의가 열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갈등의 계기가 된 교과과정 개편의 세 당사자(후마, 교협, 후마대학생위원회)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과 현행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점을 들어봤다.

교협 측에서는 교과과정 개편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주(글쓰기2 담당) 강사는 "이번 교과과정 개편은 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어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강사를 포함시켜 이번 교과과정 개편을 재검토하고 이후에도 시간강사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매 학기 기말 시험이 끝나면 도서관 이용이 어렵고, 무선 인터넷이나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에도 제한을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TF운영도 제안했다.

시간강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 필요

김진해(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는 "시간강사 처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지만 별다른 해결안이 없어 묵혀온 것"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교육 현장 속의 한 주체로서 시간강사를 교과과정 개편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논의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후마 측은 외부에 유포된 후마 대상 비방성 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유정완 학장은 "후마와 교협 간 협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 개인 SNS나 외부 저널에 올라간 후마 대상 비방성 글에 대해 교협 또는 당사자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그 이후 교협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제안(시간강사를 논의 주체로 포함한 교과과정 개편 재검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TF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마 역시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된 규정상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함께 논의해나갈 의지 또한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학장은 "외부에 퍼진 글로 인해 후마 측의 피해가 큰데, 이를 교협 측에 물을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후마 측은 교협측의 주장과 제안이 후마의 교육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의'라는 면에서 후마에도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후마대학생위원회 역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후마대학생위원회 측은 "시간강사 문제는 우리학교나 이번 학기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로만 보기에도 어렵다"며 "다른 학교와도 연대하고 규정과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과과정 개편으로 강좌 수가 축소되거나 대형 강의가 개설되는 등의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위원회 측은 대학 측과 시간강사 측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대책위를 통해 14일 행정실과의 면담자리에서 지난 공개질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본부, 후마, 시간강사 측은 면담과 비공식적 접촉을 가진 이후로는 개괄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후마의 교육철학을 존중하고 후마의 발전을 바라는 당사자들이라는 것은 여타 학교에서도 나타나는 시간강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가능성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가을학기 전형 원서접수

4.21Thu ~ 5.5Thu

전공별 모집과정

전 공	과 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 · 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 · 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 · 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뇌 · 인지과학전공	
New Biology전공	석 · 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 설명회 개최일정 및 신청관련 공지는 홈페이지 참조
- 장소 : DGIST 서울홍보센터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시간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설명회가 취소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양식 제출 –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전공 오픈랩

일시 : 4.9(토) 11:30 | 장소 : DGIST 컨실리언스홀 L29(대강당)

- DGIST 무료셔틀버스 운행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교통비 지급 및 간단한 중식, 기념품 제공
- 사전신청 필수(입학홈페이지 참조)

장학혜택 및 특전

납입금 면제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기숙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융합연구원 및 소속 7개 센터 (DGIST–LBNL신물질연구센터, 마이크로레이저 융합연구센터, DGIST–ETH마이크로로봇연구센터, 고신뢰CPS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웰니스융합연구센터)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T. 053-785-5146~7 | E–Mail admission@dgist.ac.kr | Website admission.dgist.ac.kr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